

귀농·귀촌의 경험 여부에 따른 갈등 요인과 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

이성일 · 안민지* · 김용근**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The Perception Gap about Conflict Factors and Solutions by Experience of Returning to Farming

Lee, Seong-il · Ahn, Min-ji* · Kim, Yong-geun**

Urban Safety Design Center, Institute of Daejeon Development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eneral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 Targeting people returning to farming and also people preparing for returning to farming,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awareness of conflict factors and conflict management focusing on the conflicts experiencing in the process of their movement and settlement process in rural area. In the results, people preparing for returning to farming showed higher awareness of conflicts and also higher necessity of conflict management than people already returning to farming. Also, both groups preferred individual conflict management to structural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like above, the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like below.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programs informing possible conflicts in advance in the process of returning to farming and also relieving psychological anxiety by providing prior-learning to people preparing for returning to farming.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individual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to establish mutual trust and to form community spirit through regular social gatherings between original residents and people returning to farming. Since the effect of conflict management can be maximized only when the structural and individual conflict managements are properly harmonized,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the structural conflict management which is relatively felt difficult.

Key words : Return to Farming, Conflict Factor, Conflict Solutions, Structural Solutions, Individual Solutions, Perception Gap

1. 서 론

최근 도시민의 전원적 삶의 추구하고 농촌의 저렴한 생활비에 대한 기대 등으로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귀촌인의 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2015)의 귀농·귀촌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귀농·귀촌 가구수는 44,586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2013년에 비해 1.3배로 급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실제로 귀농 의향을 지니고 있는 도시민의 수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오수호, 2013).

지자체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농촌에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와 농촌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를 해소하여 농촌의 활력을 증대시켰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도시에서의 농산물 소비자이던 이들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태적 가치를 지향한 친환경 농업을 증가시키고, 귀농·귀촌인의 IT 능력 활용과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농산업 발전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은 인구 분산 효과와 함께 농촌사회에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며(최윤지 등, 2012),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귀농 예비단계로서의 도시농업, 귀농 체험 등 새로운 농업 관련 산업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귀촌인의 증가는 향토주민으로 구성되어

Corresponding author : Kim, Yong-Geun

Tel : 02-6490-2842

E-mail : ygkin@uos.ac.kr

은 농촌사회 구성원의 다변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농촌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이 새로운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귀농·귀촌에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금강일보, 2015년 4월 13일자; 전북일보, 2015년 3월 29일자; 세계일보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 2014년 10월 7일자).

귀농·귀촌자가 농어촌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심리적·감각적·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철규 등, 2011), 이러한 귀농·귀촌인과 농촌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김용근, 2011) 귀농·귀촌자들이 농어촌마을에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주체 간 문제의 핵심은 갈등 발생 유무가 아니라 귀농·귀촌 갈등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 즉, 귀농·귀촌 갈등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자와 현재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자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체 간 갈등요인을 밝히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자와 갈등 주체 간 갈등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거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미진한 실정이다. 더욱이 귀농·귀촌에 대한 어려움이나 실패요인,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는 몇몇 연구들조차도 단순히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 수준의 연구이거나, 갈등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귀농·귀촌자들이 겪고 있으며, 앞으로 귀농·귀촌을 할 예정인 준비자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의 요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역 귀농·귀촌 방지 및 귀농·귀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등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의 경험여부에 따라 귀농·귀촌에서의 갈등 및 문제점을 예방 및 관리하고, 귀농·귀촌자의 농어촌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의 갈등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귀농·귀촌 갈등 요인에 대한 이해

귀농·귀촌 갈등요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 일반적인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갈등의 주된 원인에는 크게 목표의 차이, 희소자원 획득 경쟁, 의사소통 차이, 지각의 차이 등이 있다(장동운, 1997; 박명현, 2004; 최해진, 2004).

‘목표의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 조직 간에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장동운, 1997), ‘희소자원 획득 경쟁’은 제한되고 희소한 가치나 재화,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자원의 획득과 이용을 둘러싸고 개인이나 집단, 조직 간에 유발된 경쟁을 의미한다(장동운, 1997; 박명현, 2004). ‘의사소통 차이’는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정보를 상대방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구성원 간의 목표 및 지각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작동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최해진, 2004). ‘지각의 차이’는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 조직 간 인식차이를 의미한다(박명현, 2004).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귀농·귀촌 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갈등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김철규 등(2011), 오수호(2013), 마상진 등(2014)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귀농·귀촌 갈등 요인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앞서 고찰한 ‘갈등의 원인’에 따라 귀농·귀촌 갈등 요인을 총 4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목표의 차이’는 귀농·귀촌자와 원주민 간에 집단 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귀농·귀촌자인 농촌은 영농활동 및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 개인의 이익추구 욕구가 강할 수 있으며, 이는 귀농·귀촌자와 원주민 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지각의 차이’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를 경우에 쉽게 나타난다. 귀농·귀촌자들이 귀농·귀촌자인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원주민과의 지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원주민들의 도시 문화 이해 부족에서 오는 지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선입견과 텃새 등도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를 경우에 쉽게 나타나는 지각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희소자원 획득 경쟁’은 귀농·귀촌자인 농촌마을의 제한적인 자원을 토대로 귀농·귀촌자가 기존 원주민과 함께 영농활동을 함에 있어서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귀농·귀촌자, 주민 또는 영농집단 간 획득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인 사유지인 집이나 토지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한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사소통 차이’는 농촌사회의 특성 상 주민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귀농·귀촌의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심화되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낮으며, 귀농·귀촌인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 또한 미흡한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는 갈등이 유발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분석을 위한 변수로 정리하면, ‘목표의 차이’는 마을 발전 방향 및 운영방식 차이로, ‘희소자원의 획득 경쟁’은 집이나 토지 등과 같은 재산권 침해, 영농방식의 차이 등 2개의 변수로 정의하였으며, ‘의사소통 차이’는 마을 일이나 모임의 참여 문제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귀농·귀촌 갈등 요인은 다시 크게 분류해 보면 ‘목표의 차이’, ‘희소자원의 획득 경쟁’, ‘의사소통 차이’는 ‘경제·생산적 요인’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나머지 ‘지각의 차이’는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원주민들의 도시문화 이해 부족,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등 3개의 변수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지각의 차이’는 다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flict Factors of Returning to Farming

Classification		Contents
Economic/ Productive Factor	Difference in Goal	- Difference in town development direction & operation direction
	Competition to Acquire Scarce Resources	- Violation of property right (house, land) - Difference in farming methods
	Difference in Communication	- Matter of participating in town issues or gathering
Social/ Cultural Factor	Difference in Perception	- Lack of understanding of rural society and culture - Lack of original residents' understanding of urban culture - Prejudice and territorial behaviors towards people returning to farming

2. 귀농·귀촌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

앞서 살펴본 귀농·귀촌 갈등 요인은 개인과 공동체 간의 갈등인 사회적 갈등과 관련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관리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의 구조 자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구조적 관리(structural solutions)와 둘째, 구성원들이 서로 모여 대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갈등 요인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개별적 관리(individual solutions)가 있다(김용근, 2011).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적 관리방안에는 첫째, ‘대표자 선출(establishment of super-ordinate authority)’이 있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대표를 선출하여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며, 대표가 내린 결정 사항을 존중함으로써 개인의 극단적인 이익추구를 줄이는 방법이다(Cross & Guyer, 1980; Hardin, 1968; Messick & Brewer, 1983). 이러한 방법을 귀농·귀촌 관리에 적용해 보면 귀농·귀촌자가 정착하게 된 마을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갈등행위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세우고, 귀농·귀촌자의 마을 조직 참여 및 의사결정권 보장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선택적 보상제도(selective incentive)’는 공동체의 이익에 협조적인 구성원은 특별한 보너스를 받게 되며, 비협조적인 구성원은 부수적인 벌칙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Platt, 1973; Dawes, 1980). ‘선택적 보상제도’ 방법을 통해 귀농·귀촌자가 마을에 정착 후 마을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의 정도 차이나 운영상 참여하는 노력의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자원의 개별화(privation of territorialization)’는 공공자원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개인 소유화하는 방법으로(Samuelson & Messick, 1986; Cass & Edney, 1978),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자산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자산을 관리하듯이 주민의식을 갖게 하는 관리방식이다(김용근, 2011). ‘자원의 개별화’ 방법으로, 공공재산인 농촌마을 경관을 결정하는 자연자원이나 사회기반 시설들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자산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개인자산을 관리하듯이 주민의식을 갖게 하여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다.

개별적 관리에는 첫째, ‘직접대면법(face to face interaction)’이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Dawes, 1980). ‘직접대면법’을 통한 개별적 관리방안으로는 귀농·귀촌자와 원주민 간의 정기적인 친목모임을 개최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으며, 귀농·귀촌자인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마을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이 소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마을의 전체회의를 통해 영농방식을 공유하고, 마을공동 소득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홍보 및 교육(information and knowledge)’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하고, 자신

의 언행을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직에서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나 규칙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김용근, 1991; 2011).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자와 원주민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귀농·귀촌자에 대해 농촌사회와 원주민에 대한 사전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를 분석을 위한 변수로 정리하면, 구조적 갈등관리 방안으로는 크게 ‘대표자 선출’은 갈등행위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규정, 귀농·귀촌자의 마을조직 참여 및 의사결정권 보장 등 2개의 변수로 정의하였으며, ‘자원의 개별화’는 마을 공동자산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으로, ‘선택적 보상제도’는 공동체 수익 발생 시 개별 공헌도에 따른 수익 배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개별적 갈등관리 방안으로는 크게 ‘직접대면법’은 정기적 친목모임 개최, 귀농·귀촌자 교육 강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등 2개의 변수로 정의하였으며, ‘홍보 및 교육’은 농촌사회와 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영농방식 공유 및 마을 공동 소득화 프로그램 마련 등 2개의 변수로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flict Management Factor of Returning to Farming

Classification	Contents
Structural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ting up clear rules to prevent conflicts - Guaranteeing the right to make decisions & to participate in town organization by people returning to farming - Cultivating ownership of joint resource/property in town - Allocating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contribution in case when the community profits occur
Individual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ing mutual trust by holding regular social gatherings - Forming community spirit by reinforcing the education f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 - Providing prior-education about rural society and residents - Sharing farming methods & establishing the town joint income program

3. 귀농·귀촌 경험 여부

급격히 증가한 귀농·귀촌인은 농촌사회 구성원의 다변화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른 기존 농촌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갈등이 새로운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농촌생활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의 애로사항 중 23.9%가 이웃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2014)의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은 마을주민과의 갈등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갈등 없음’(38.4%)도 많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33.9%), ‘집이나 땅 문제 등이 재산권 침해’(24.3%),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15.4%) 등을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갈등

문제는 결국 귀농·귀촌에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금강일보, 2015년 4월 13일자; 전북일보, 2015년 3월 29일자; 세계일보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 2014년 10월 7일자).

이처럼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귀농·귀촌을 결심했지만 정작, 귀농·귀촌 후에는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귀농·귀촌을 한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 귀농·귀촌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역 귀농·귀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수준 및 여건을 고려하여 총 37개 기관에서 42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귀농기초 분야는 10개, 귀농중급 분야는 16개, 귀농심화 분야는 4개, 귀촌생활 분야는 1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갈등관리교육은 총 26개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안민지, 2015).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전문화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귀농·귀촌 준비자를 위한 교육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전에 귀농·귀촌 후의 생활에 대해 미리 배우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과 후의 인식차이를 줄여 역 귀농·귀촌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안정적인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전과 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귀농·귀촌 전과 후를 귀농·귀촌 경험 여부에 따라 귀농·귀촌 경험자와 준비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귀농·귀촌 경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귀농·귀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리고 있으며, 크게 귀농의 개념과 귀촌의 개념을 구분하는 경우(강대구, 2006; 고성준, 2007)와 이와 다르게 귀촌을 귀농에 포함시키는 경우(유정규, 1998; 서규선과 변재면, 2000; 김상균, 2012)와 귀농을 귀촌에 포함시키는 경우(박기서와 정일훈, 2012)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선행연구자들은 귀농과 귀촌에 대한 개념을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거나, 귀농을 광의의 개념으로, 반대로 귀촌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미가 혼동되어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의 정의를 귀농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 귀촌은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지만,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영농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정의를 종합하여 모든 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을 ‘농촌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집단을 귀농·귀촌 경험자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귀농·귀촌 준비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앞서 고찰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귀농·귀촌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귀농·귀촌 준비프로그램은 총 37개의 기관에서 42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준비자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준비자를 귀농·귀촌 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귀농·귀촌준비교육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선정

가.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귀농·귀촌의 경험여부에 따른 귀농·귀촌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과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은 1회 이상의 귀농·귀촌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귀농·귀촌에 실패하고 현재 재준비를 하는 집단도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에 포함하였다.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은 귀농·귀촌 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귀농·귀촌준비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① 귀농·귀촌 갈등요인과 ② 귀농·귀촌 갈등관리요인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귀농·귀촌의 경험여부에 따른 귀농·귀촌 갈등요인과 귀농·귀촌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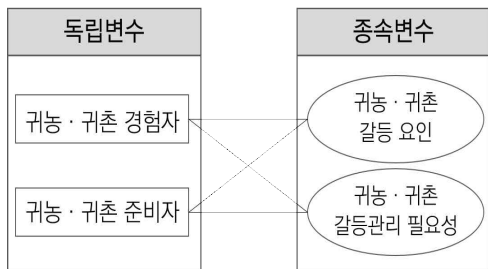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나. 연구가설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른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과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의 귀농·귀촌 갈등요인과 귀농·귀촌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1-1.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라 귀농·귀촌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라 귀농·귀촌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크게 귀농·귀촌 갈등요인, 귀농·귀촌 갈등관리요인 측정항목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영향분석을 위한 인구통계학적 측정항목으로 구성된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명목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귀농·귀촌 갈등요인과 귀농·귀촌 갈등관리요인에 대한 항목은 리커트식 5점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심도 있는 결과를 위해 갈등 주체 및 해결주체에 대한 항목을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Table 3.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Items

Section	Questionnaire item
Conflict Factor of Returning to Farming	A. Difference in town development direction & operation direction
	B. Violation of property right(house, land)
	C. Difference in farming methods
	D. Matter of participating in town issues or gathering
	E. Lack of understanding of rural society and culture
	F. Lack of original residents' understanding of urban culture
	G. Prejudice and territorial behaviors towards people returning to farming
Conflict Management Factor of Returning to Farming	1. Establishing mutual trust by holding regular social gatherings
	2. Forming community spirit by reinforcing the education f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
	3. Providing prior-education about rural society and residents
	4. Sharing farming methods & establishing the town joint income program
	5. Setting up clear rules to prevent conflicts
	6. Guaranteeing the right to make decisions & to participate in town organization by people returning to farming
	7. Cultivating ownership of joint resource/property in town
	8. Allocating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contribution in case when the community profits occur
Conflict Subjects, Resolution Subjects	Conflict Subjects, Conflict Adjustment and Resolution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m of returning to farming, Sex, Age, Highest level of education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귀농·귀촌 경험자와 귀농·귀촌 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method)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1:1 면담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설문에 앞서 예비조사50부를 2014년 7월 29일에 실시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의 수정을 실시하였고, 2014년 8월 19일 ~ 22일에 걸쳐 4일 동안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귀농·귀촌 경험자 100명과 귀농·귀촌 준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총 200부 실시하였다. 각각 설문지에서 불성실한 답변과 무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유효 표본수 총 185부(귀농·귀촌 경험자 89명, 귀농·귀촌 준비자 96명)의 표본을 최종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20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예비분석으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라 갈등인식, 갈등관리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갈등주체 및 해결주체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설문응답자 특성

설문응답자 185명 중 남성이 71.4%, 여성이 28.6%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60대가 22.7%, 40대가 19.5%, 30대 이하가 10.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대 졸업 12.4%, 대학교 졸업 34.2%, 대학원 이상 8.6%으로 고학력으로 볼 수 있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응답자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People Returning to Farming	People Preparing for Returning to Farming	Total
		N(%)	N(%)	N(%)
Gen-der	Male	66(74.2)	66(68.8)	132(71.4)
	Female	23(25.8)	30(31.2)	53(28.6)
	Total	89(100)	96(100)	185(100)
Age	Less than 30	18(20.2)	2(2.1)	20(10.8)
	40-49	10(11.2)	26(27.1)	36(19.5)
	50-59	39(43.9)	48(50.0)	87(47.0)
	More than 60	22(24.7)	20(20.8)	42(22.7)
	Total	89(100)	96(100)	185(100)
Edu-cation	Elementary	6(6.7)	0(0)	6(3.2)
	Middle school	4(4.5)	2(2.1)	6(3.2)
	High school	27(30.4)	44(45.8)	71(38.4)
	College	13(14.6)	10(10.4)	23(12.4)
	University	33(37.1)	30(31.3)	63(34.2)
	Graduate school	6(6.7)	10(10.4)	16(8.6)
Total	89(100)	96(100)	185(100)	

2. 가설검증을 위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

가. 종속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자료 변동을 설명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 요인분석에는 연구자가 요인수에 이론적 배경을 강하게 구성한 검사라면 요인수를 지정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며, 요인 수를 모를 때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고찰과 갈등 및 갈등관리 이론을 토대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측정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이 필요한 연구로써 확인적 요인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귀농·귀촌 갈등요인, 갈등 관리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수별 중분류를 기준으로 요인수를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귀농·귀촌 갈등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0.859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1011.745 (p=0.000)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므로 상관행렬은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설명된 총 분산은 79.048%로 나타났으며, 0.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분류된 갈등요인 중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목표의 차이, 희소자원 획득경쟁, 의사소통 차이 항목은 '경제·생산적 갈등'요인, 지각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갈등'요인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귀농·귀촌 갈등관리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0.752로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513.910(p=0.000)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므로 상관행렬은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을 알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2개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설명된 총 분산은 61.636%로 나타났으며, 0.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을 해당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갈등관리 요인은 '개별적 갈등관리', '구조적 갈등관리' 2개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2).

나.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분석

설문지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가 오차 없이 측정하였고,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귀농·귀촌의 경험 여부에 따른 갈등 요인과 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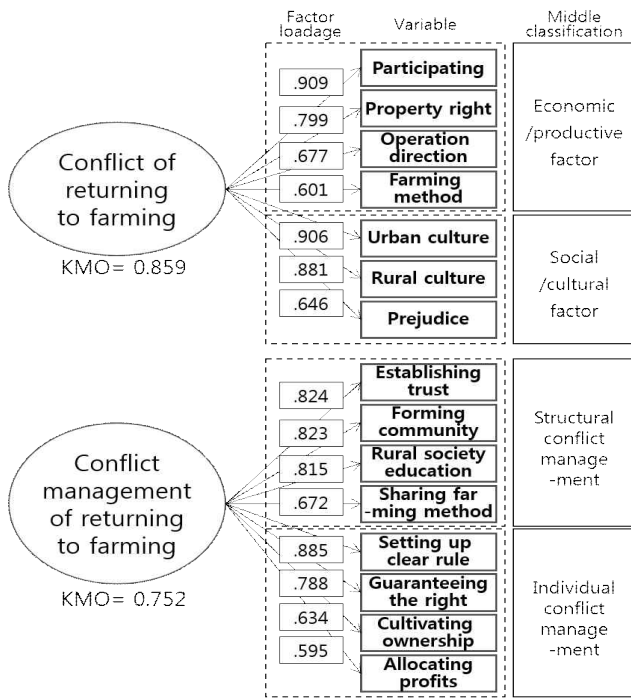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의 추정방법 중에서 설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 간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측정하여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분류되어진 구성변수별로 총 4개의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모두 0.6이상으로 측정되어 각각의 측정변수로 구성된 설문 문항 간의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간 인식차이

가.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른 갈등인식 차이

귀농·귀촌 경험자와 귀농·귀촌 준비자에 따른 귀농·귀촌 갈등인식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6>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이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보다 낮은 갈등인식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갈등요인과 관련된 7개의 항목에 대해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경제·생산적 요인의 4개 항목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Dependent Variable

Section	Dependent Variable	Factor Loadage		Common Feature	Eigen Value	Dispersion Explanatory Power	Cronbach's α
		1	2				
Conflict of Returning to Farming	D. Matter of participating in town issues or gathering	.909		.866	2.799	39.985	0.872
	B. Violation of property right(house, land)	.799		.614			
	A. Difference in town development direction & operation direction	.677		.772			
	C. Difference in farming methods	.601		.769			
	F. Lack of original residents' understanding of urban culture		.906	.906	2.734	39.063	0.842
	E. Lack of understanding of rural society and culture		.881	.862			
	G. Prejudice and territorial behaviors towards people returning to farming		.646	.776			
Appropriacy of standard formation KMO=0.85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1011.745(p=0.000^*)$							
Conflict Management of Returning to Farming	1. Establishing mutual trust by holding regular social gatherings	.824		.809	3.115	38.943	0.624
	2. Forming community spirit by reinforcing the education f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	.823		.654			
	3. Providing prior-education about rural society and residents	.815		.538			
	4. Sharing farming methods & establishing the town joint income program	.672		.410			
	5. Setting up clear rules to prevent conflicts		.885	.667	1.815	22.693	0.824
	6. Guaranteeing the right to make decision & to participate in town organization by people returning to farming		.788	.473			
	7. Cultivating ownership of joint resource/property in town		.634	.678			
	8. Allocating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contribution in case when the community profits occur		.595	.701			
Appropriacy of standard formation KMO =0.75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513.910(p=0.000^*)$							

1.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2.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3. * $p < 0.01$

Table 6. Differences in Awareness of Conflicts in Accordance with the Matter of Experiencing Returning to Farming

Conflict Factors of Returning to Farming		Matter of Experiencing Returning to Farming		T-test of Average Identity	
Middle Classification	Variable	People Returning to Farming	People Preparing for Returning to Farming	t	Significance Level
Economic/Productive Factor	Difference in town development direction & operation direction	2.31	3.73	-10.709	0.000*
	Difference in farming methods	1.88	3.48	-13.825	0.000*
	Violation of property right(house, land)	1.65	3.17	-13.431	0.000*
	Matter of participating in town issues or gathering	1.63	3.17	-14.127	0.000*
Social/Cultural Factor	Lack of understanding of rural society and culture	1.94	3.52	-12.126	0.000*
	Lack of original residents' understanding of urban culture	1.31	2.73	-13.695	0.000*
	Prejudice and territorial behaviors towards people returning to farming	1.28	2.83	-15.270	0.000*

* p<0.05

Table 7. Difference in necessity of conflict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matter of experiencing returning to farming

Conflict Management Factor of Returning to Farming		Matter of Experiencing Returning to Farming		T-test of Average Identity	
Middle Classification	Variable	People Returning to Farming	People Preparing for Returning to Farming	t	Significance Level
Structural Conflict Management	Setting up clear rules to prevent conflicts	3.42	3.29	0.959	0.339
	Guaranteeing the right to make decisions & to participate in town organization by people returning to farming	3.36	3.56	-1.623	0.106
	Cultivating ownership of joint resource/property in town	3.63	3.88	-2.123	0.035*
	Allocating profit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contribution in case when the community profits occur	3.55	3.90	-3.666	0.000*
Individual Conflict Management	Establishing mutual trust by holding regular social gatherings	3.65	4.13	-5.303	0.000*
	Providing prior-education about rural society and residents	3.56	3.96	-3.720	0.000*
	Sharing farming methods & establishing the town joint income program	3.69	4.08	-4.739	0.000*
	Forming community spirit by reinforcing the education for people returning to farming	3.61	4.13	-6.361	0.000*

* p<0.05

에 대한 평균값이 사회·문화적 요인의 3개 항목에 대한 평균값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귀농·귀촌 경험여부와는 상관없이 두 집단 모두 귀농·귀촌 갈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제·생산적 요인인 ‘마을 발전방향 및 운영방식 차이’, ‘영농방식의 차이’, ‘재산권 침해(집, 토지)’, ‘마을 일이나 모임의 참여 문제’에 대한 갈등 인식의 수준이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른 갈등관리의 필요성 인식차이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갈등관리 필요

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이 갈등관리 대한 8개 항목 모두에서 평균 3.0 이상의 필요 정도를 보였다. 이는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른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과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가 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갈등관리에 대한 항목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조적 갈등관리의 필요성 보다는 개별적 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과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 모두 사회적 구조의 변경이나 공식적

인 갈등관리인 구조적 갈등관리보다는 개개인이 교육을 받고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는 개별적 갈등 관리를 좀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갈등주체와 갈등 조정 및 해결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귀농·귀촌 갈등주체에 대한 귀농·귀촌 경험자와 귀농·귀촌 준비자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귀농·귀촌 경험자는 갈등의 주체가 없다(60.7%)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귀농·귀촌 준비자는 마을주민(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포함)이 가장 큰 갈등의 주체일 것이라고 예상(71.9%)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귀농·귀촌 준비자가 귀농·귀촌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 발생하는 격차와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농·귀촌 시 가장 많이 마주치고 함께 생활하게 될 마을주민(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포함)을 갈등의 주체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이미 귀농·귀촌 후 마을에 정착한 귀농·귀촌 경험자는 실제로 귀농·귀촌 준비자보다 갈등의 주체를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갈등 조정 및 해결 주체에 대한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과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른 갈등 주체에 대한 인식 차이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귀농·귀촌 갈등 조정 및 해결주체에 대한 인식은 귀농·귀촌 경험자(56.2%)와 귀농·귀촌 준비자(65.6%) 두 집단 모두 귀농·귀촌 경험자 본인을 갈등의 조정 및 해결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집단 모두 마을리더 및 마을원로나 귀농·귀촌인 단체, 행정기관 및 공무원(갈등 조정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귀농·귀촌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으로 인식하는 갈등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귀농·귀촌을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갈등을 본인 스스로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8).

V. 결 론

본 연구는 귀농·귀촌 경험자가 농어촌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귀농·귀촌 경험여부에 따라 귀농·귀촌 경험자들이 겪고 있고, 준비자들이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갈등의 요인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갈등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

해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귀농·귀촌 갈등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세우고, 귀농·귀촌 경험자와 귀농·귀촌 준비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귀농·귀촌의 경험 여부에 따른 갈등요인과 갈등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귀농·귀촌 갈등인식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이 좀 더 높게 갈등을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문화적 갈등요인보다는 경제·생산적 갈등요인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귀농·귀촌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갈등인식이 더 높은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이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구조적 갈등관리보다는 개별적 갈등관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귀농·귀촌 준비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보다 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그에 따른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귀농·귀촌 경험자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갈등의 주체 또한 대부분 마을주민(작목반, 영농조합법인

Table 8. Differences in Awareness of Conflict Subjects, Conflict Adjustment and Resolution Subjects

Classification		People Returning to Farming	People Preparing for Returning to Farming	Total
		N(%)	N(%)	N(%)
Conflict Subjects	Resident	9(10.1)	69(71.9)	78(42.2)
	Village Leader	12(13.5)	4(4.2)	16(8.6)
	People Returning to Farming	6(6.7)	6(6.2)	12(6.5)
	Public Servant	8(9.0)	7(7.3)	15(8.1)
	None	54(60.7)	10(10.4)	64(34.6)
Total		89(100.0)	96(100.0)	185(100.0)
Pearson $\chi^2=80.32$ (df=4, p=0.000*)				
Conflict Adjust-ment and Resolution Subjects	Oneself	50(56.2)	63(65.6)	113(61.1)
	Village Leader and Senior Member	29(32.6)	18(18.8)	47(25.4)
	The Group of People Returning to Farming	7(7.9)	6(6.2)	13(7.0)
	Public Servant and the Experts of Conflict Resolution	3(3.4)	9(9.4)	12(6.5)
Total		89(100.0)	96(100.0)	185(100.0)
Pearson $\chi^2=6.892$ (df=3, p=0.075)				

* p<0.05

포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귀농·귀촌을 하지 않은 준비자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귀농·귀촌 준비자를 중심으로 선행학습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귀농·귀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미리 인지를 시키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선배들의 조언 및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갈등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마을주민(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포함)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이 개발되고 활발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귀농·귀촌 경험자와 준비자 모두 갈등해결의 주체를 본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모든 집단에서 구조적 갈등관리보다는 개별적 갈등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갈등 조정 및 해결주체를 귀농·귀촌경험자와 준비자 본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즉, 귀농·귀촌자와 원주민 간에 정기적인 친목모임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며, 영농방식 공유 및 마을 공동소득화 프로그램 등의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 구조적 갈등관리와 개별적 갈등관리가 서로 적절하게 조화될 때 갈등관리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구조적 갈등관리명 명확한 관리규정과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경험자와 준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촌마을의 관리규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조직 참여 및 의사결정권에 대한 역할극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 귀농·귀촌 경험자와 준비자가 마을 대표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한다면, 귀농·귀촌 경험자 및 준비자와 마을주민 및 대표자와의 갈등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인식조사 수준에 머물렀던 귀농·귀촌 연구를 귀농·귀촌 경험자가 경험하고, 귀농·귀촌 준비자가 예상하는 갈등 요인 및 갈등관리 필요성을 통해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자의 갈등요인 및 갈등관리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3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여건이나 역사문화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hoe, Y. J., Hwang, J. I., Lee, S. Y., Ahn, W. S., 2012, The Art of War about Returning to Farmi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 Kim, Y. G., 2011, Comprehension of Agricultural Joint Business and Conflict Management, Haenam, Korea.
3. Jang, D. W., 1997, Conflict Management, Trade Management Corp.
4. Choi, H. J., 2004, Structure and Strategy of Conflict, Dunam, Korea.
5. Ma, S. J., Park, D. S., Park, S. H., Choi, Y. J., Choi, Y. W., Nam, K. C., 2014, A Study on Long-term Tracing the Status of the Settlement of a Return to Farming,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6. Oh, S. H., 2013, A Discussion on the Moving in · Settling Down Circumstances of the Families Returning to the Countryside for Farming or else and How to Support Them, G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7. Kim, S. K., 2012,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s of Middle-Elderly Aged Return-Farmer, Daegu University, Korea.
8. Park, E. K., 2008, Investigation on satisfaction of Urban-to-Rural Migrants dwelling in Toungwol Area, University of Seoul, Korea.
9. Park, M. H., 2004,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of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of Seoul, University of Seoul, Korea.
10. Ko, S. J., 2007, The Study for Understanding of Refarmer's Reality & Stable Settlement, Jeonbuk University, Korea.
11. Cross, J. G., and Guyer, M. J., 1980, Social Trap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2.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 1243-1248.
13. Messick & Brewer, 1983, Solving Social Dilemma,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 11-44.
14. Platt, 1973, Social Traps, American Psychologist, 28 : 641-651.
15. Dawes, R. M., 1980, Social Dilemm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 169-193.
16. Samuelson, C. D. and D. M. Messick, 1986, Alternatives Structural Solutions to Resource

- Dilemma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7 : 139-155.
17. Cass, R. C. and J. J. Edney, 1978, The Commons Dilemma : A Simulation Testing Resource Visibility and Territorial Division, Human Ecology, 6 : 371-386.
1. Ahn, M. J., Kim, S. C., Kim, Y. G., 2015, A Case Study on Participatory Education for Conflict Management When People Return to Farming, Korean Rural Tourism Association.
18. Kang, D. G., 2010, Pres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 of People Return to Farm and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17(4), 743-771.
19. You, J. K., 1998, Pres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 of People Return to Farming, Korean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34, 23-41.
20. Seo, K. S., Byun, J. M., 2000, Development of Long and Short-run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er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7(1), 137-153.
21. Park, K. S., Cjung, L. H., 2012, Preferring Areas and Determinants of the Urban-to-Rural Migr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10(2), 91-105.
-
- Received 29 March 2016
 - First Revised 26 April 2016
 - Second Revised 23 May 2016
 - Finally Revised 24 May 2016
 - Accepted 24 May 2016